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바닥 다지는 과정 (7월 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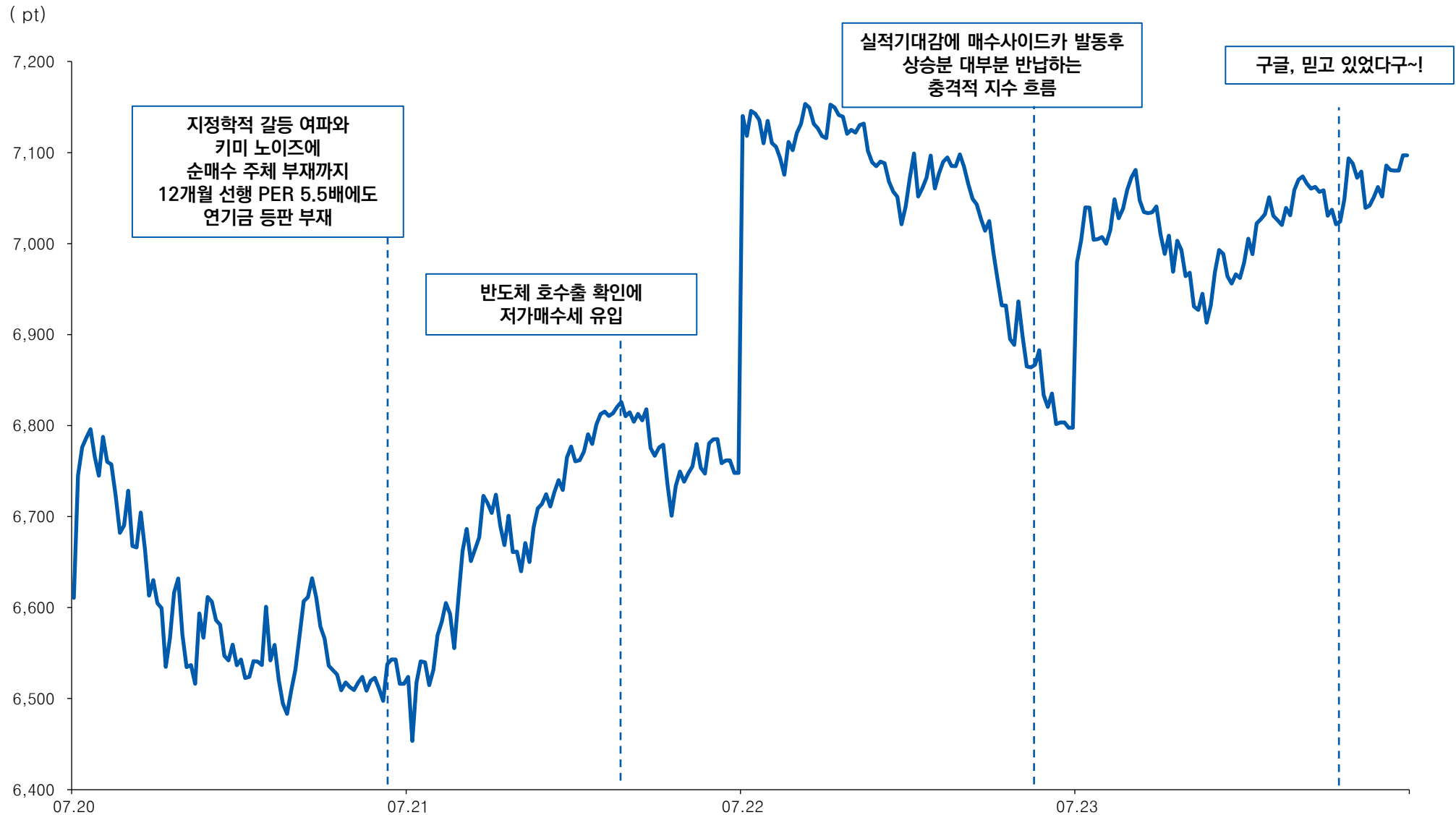
SUMMARY

바닥 다지는 과정 (7월 5주)

- 주간(7/20~7/23) KOSPI, KOSDAQ은 각각 4.1% 상승, 0.2% 하락했습니다. 7월 지수 급락은 반도체 수요 붕괴보다 높아진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동시에 출회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저가매수와 알파벳 실적 확인을 통해 지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 상반기 반도체·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은 이익 비중과 실적 가시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구현한 방식이 개인의 레버리지 ETF 매수와 신용, 외국인의 대형주 매도에 의존하면서 주가 하락 이후 동일한 수급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7월에 무너진 것은 반도체의 이익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Kimi K3는 AI 모델 효율화가 GPU·HBM 수요와 하이퍼스케일러 Capex를 낮출 수 있다는 답시크형 우려를 재점화하며 최근 반도체 차익실현 매물 출회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고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Cloud 매출이 82%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026년 Capex 가이드를 1,950억~2,050억달러로 상향했고, 2027년에도 상당한 투자 증가를 예고했습니다. 고객 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어선다는 설명까지 감안하면 AI 투자 피크아웃과 반도체 고점론을 뒷받침할 실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이란 갈등 재심화로 유가와 금리가 반등한 점은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을 제약할 매크로 변수입니다. 다만 KOSPI의 선행 PER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졌고, ROE를 고려한 상대 밸류에이션에서도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합니다. 정부의 레버리지 ETF 제도 개선과 KOSDAQ 부양 의지도 이어지고 있어 현 수준에서는 추가 매도보다 낙폭과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주 개인은 레버리지 ETF 손실 청산과 차익실현 과정에서 약 5.8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누적 7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역사적 저점권까지 낮아져 환율 안정과 현물 매수가 지속될 경우 추가 매수 여력은 큼니다. 다만 강제매도 정점 통과가 추세적 반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반도체 대형주를 우선시하고, 수급 개선(디레버리징 축소)이 확산될 때 호실적, 과매도(KOSDAQ) 업종으로 비중을 넓히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외국인의 귀환과 구글 실적 발표에 지수 반등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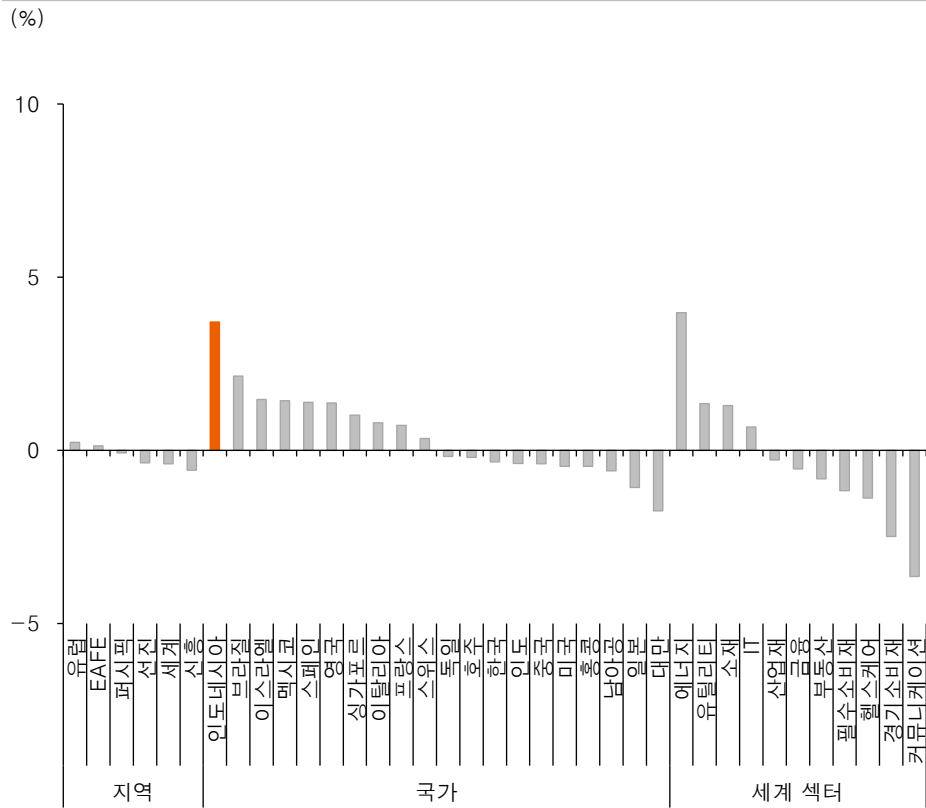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매크로 우려 넘어선 저가매수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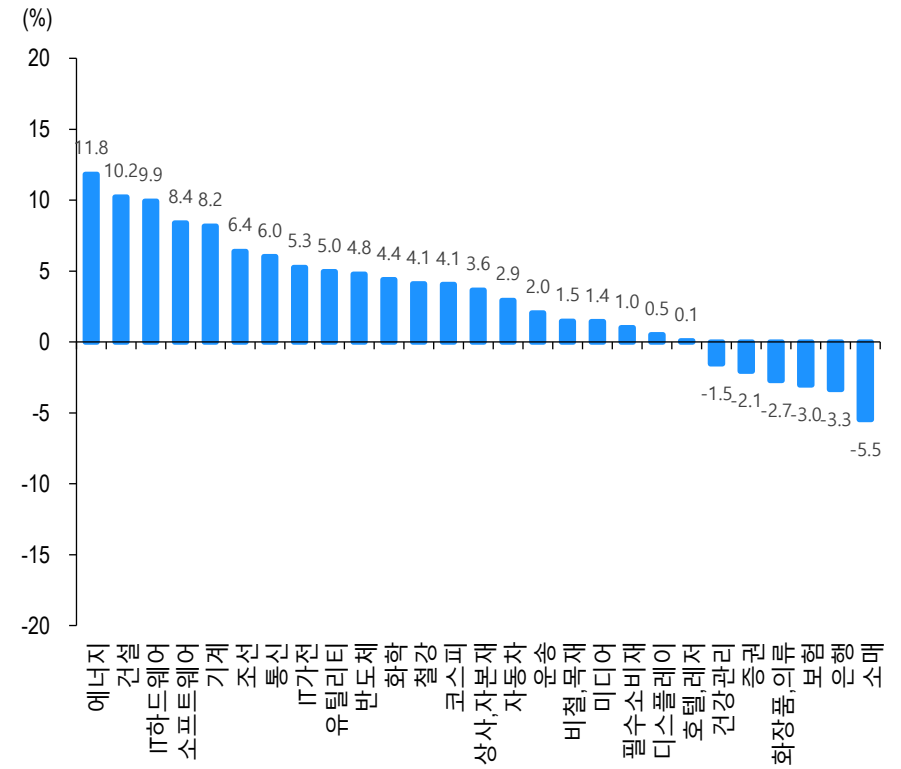
- 주간(7/20~7/23) KOSPI, KOSDAQ 각각 +4.1%, -0.2% 등락. 지수 밸류에이션 진바닥 마저 붕괴된 이후 외국인 수급 유입. 수출데이터 및 구글 실적 확인하면서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 우려 불식
- 업종별로 에너지, 건설,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 업종 상승. 소매, 은행, 보험, 화장품/의류, 증권 업종 하락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7월 22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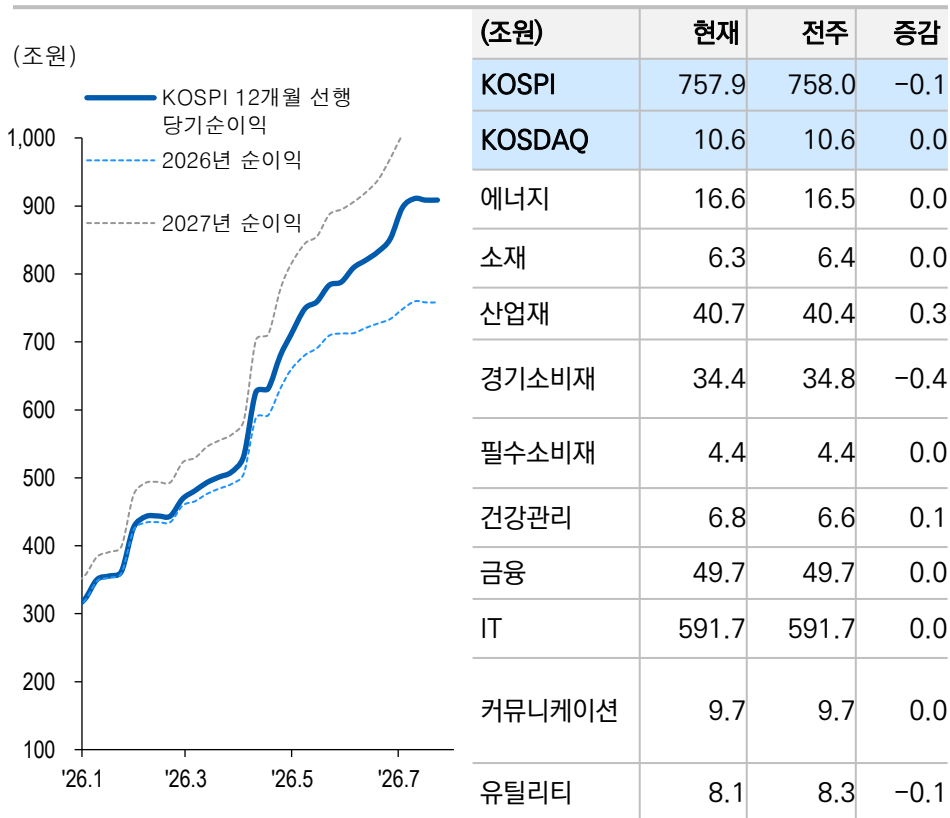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7월 23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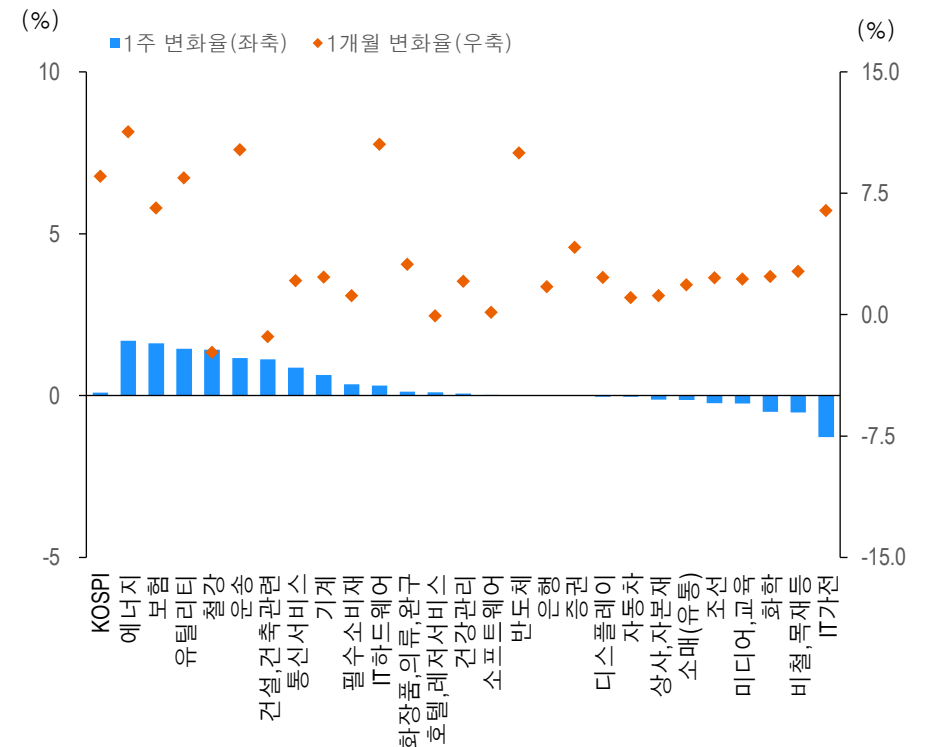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속도 둔화.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0.1조원 감소
- 최근 지수, 주가 급락으로 인한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 상향(보고서 발간) 멈춘 영향으로 추정
- 주간 EPS 등락폭도 0에 수렴하는 상황. 금주의 이익추정치 상승/하락은 큰 의미 없는 지표로 판단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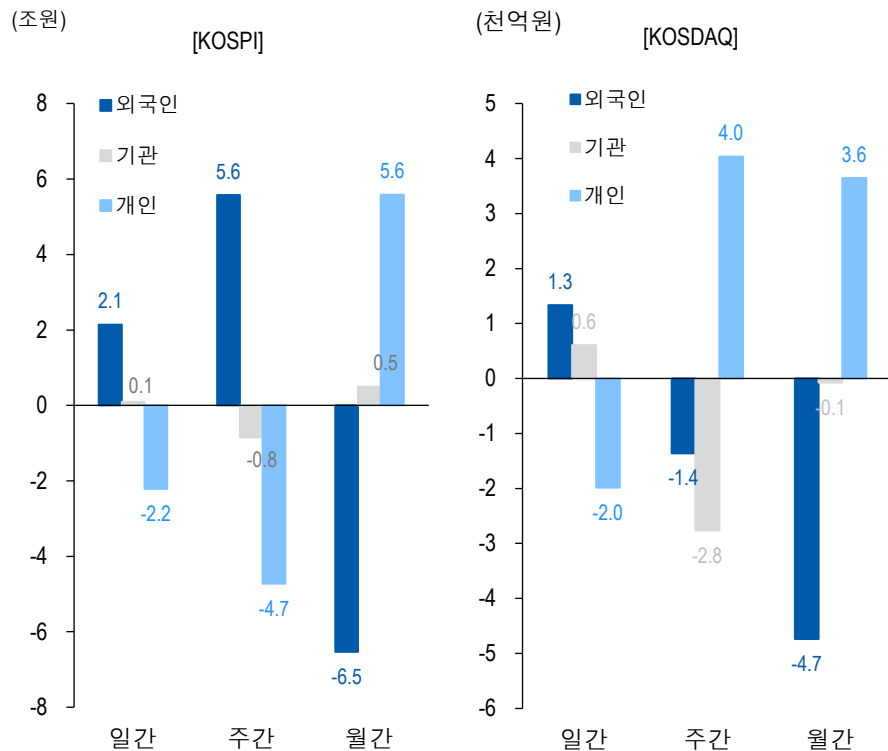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투매에 동참한 개인과 저가매수 유입된 외국인

- 외국인 주간 전전주 3.7조원 순매도 → 전주 1.5조원 순매수 → 금주 5.6조원 순매수로 유의미한 순매수 규모 확대 5월 이후 최대 규모. 개인은 밸류에이션 역사상 최저점 부근에서도 투매에 동참. KOSDAQ은 순매수
- 외국인 -기관 동반 낙폭 과대 반도체 대형주 중심 순매수. 지수 상승 견인했던 개인투자자 순매수 여력 둔화된 가운데 외국인 현물 중심 자금 유입 지속 관찰된다면 지수 반등에 탄력 생길 것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에너지	디스플레이
	기계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서비스
	IT가전	통신서비스	미디어, 교육
	에너지	조선	비철, 목재등
	은행	기계	소매(유통)
순매도 상위	소프트웨어	소매(유통)	건설, 건축관련
	디스플레이	증권	소프트웨어
	화학	화장품, 의류, 완구	기계
	조선	은행	에너지
	통신서비스	반도체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슈퍼 실적 위크

7월 5주차 주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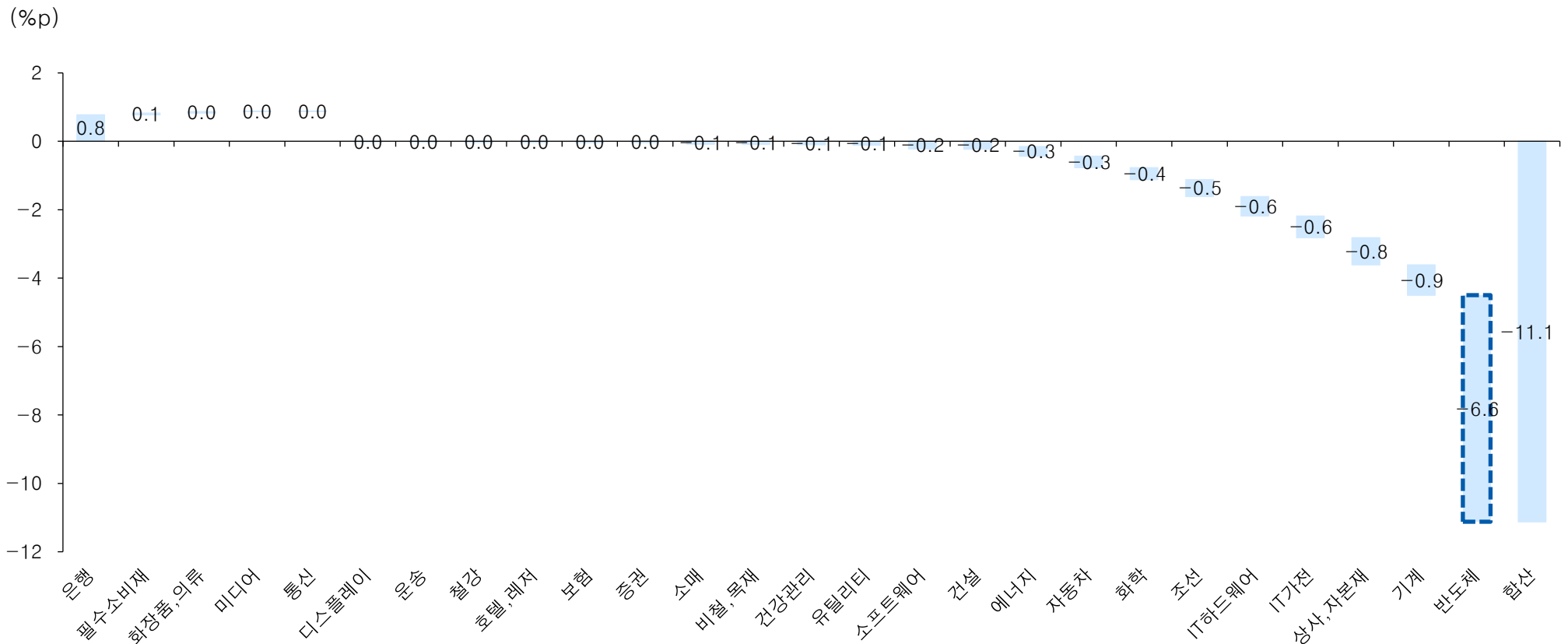
	7월 27일(월)	7월 28일(화)	7월 29일(수)	7월 30일(목)	7월 31일(금)
경제지표			미국) FOMC		일본)BOJ 통화정책회의
정치					
기업	미국) 월풀 한국) 두산, 두산에너지빌리티, 한화오션, LG이노텍, SKC, ISC, HDC랩스, HD현대마린솔루션, 삼성카드, 기업은행, IM금융지주, 동양생명, 에스티팜	미국) 누코, 보잉, 블룸에너지, 비자, 시게이트, 코카콜라, 페이팔, 포드 한국) 한미약품, 하이브, 한미사이언스, HD현대일렉트릭, 한화시스템, 대우건설, BNK금융지주, PI첨단소재, 칩스앤미디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 메타, 램리서치, 바이오젠, 스타벅스, 쉘컴 한국) SK하이닉스 , HD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현대오트모터, 한화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삼성물산, 크래프톤, 넥센타이어, GS건설, LG생활건강, HK이노엔	미국) 아마존 , 애플, 마스터카드 한국) 삼성전자 /전기/SDS/SDI/LGES/전자/SK이노베이션/POSCO홀딩스, 포스코틸리온/퓨처엠/아모레퍼시픽/대한전선/제이브이엠/키움증권/한화비전/대한조선	미국) 세브런, 엑슨모빌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LG씨엔에스, 에코프로비엠, 현대건설, 한온시스템, 대덕전자, SOOP, 한화엔진
주목 Point	다음주 FOMC이나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및 SK하이닉스 실적. 또한 한미 실적시즌 본격화 되는 것 역시 지수 순환매에 영향 줄 것. 이번주 전력기기, 증권, 금융(은행) 등 호실적 발표하며 반도체 외 업종에도 수급 분산효과 야기. 하이퍼스케일러는 Capex 가이드라인 상향, SK하이닉스는 예상치 상회 실적 발표 및 주주환원책 발표를, 기타 실적 발표 기업들은 호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지수 반등 추세에 긍정적 흐름 야기할 것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7월 지수 급락의 주범은 지수 신고가의 주역이었던 반도체

- 7월 반도체 급락은 실적 훼손보다 높아진 기대치와 레버리지 수급의 동시 조정에서 비롯
- 연초 이후 급등한 포지션에서의 디레버리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리밸런싱 매물 출회가 변동성 심화 야기
-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및 금리 상승도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 다만, AI 반도체 수요와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이 훼손된 것은 아닌 상황
- 이번 조정은 업황 하강보다는 과도했던 기대와 수급 쓸림의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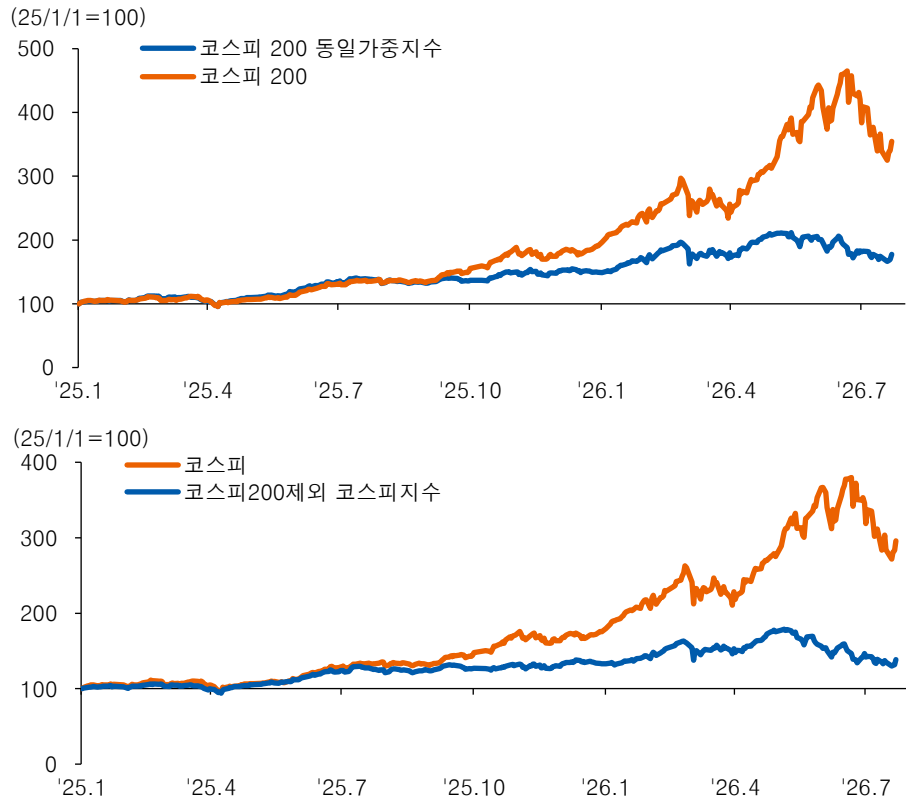
7월 업종별 상승기여도



합리적이라 판단했던 반도체 중심 이성적 쏠림

- 상반기 지수 상승 반도체, 대형주 중심 수급 쏠림 이어지며 신고가 경신 했으나 해당 수급 쏠림 자체는 펀더멘털로 정당화. 본인도 이성적 쏠림 이라고 판단. 이유는 해당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이익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
-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이 이익 비중 따라가지 못하여 여전히 이익추정치 대비 시가총액 비중 저평가되어 있다는 논리 적용. 이는 이성적 판단인 것처럼 보이나
1) 해당 시가총액 대형주 순매수 주체인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중심 투기적 수급 2) 변동성 확대에 따른 스마트머니 자금 유입 난항, 즉 수급 꼬임 야기

지수는 신고가였으나 극소수 대형주가 주도한 상승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영업이익 추정치 KOSPI 내 비중

(단위: %)	2026년 비중	2027년 비중	2028년 비중
삼성전자	39.6	41.5	40.2
SK하이닉스	28.2	30.5	29.2
SK스퀘어	4.5	4.2	4.4
삼성전기	0.2	0.2	0.4
현대차	1.2	1.0	1.1
LG에너지솔루션	0.1	0.3	0.5
삼성바이오로직스	0.3	0.2	0.2
삼성생명	0.3	0.4	0.3
KB금융	1.0	0.7	0.7
기아	1.1	0.9	0.9
삼성물산	0.4	0.3	0.3
신한지주	0.8	0.6	0.6
HD현대중공업	0.4	0.3	0.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4	0.4	0.5
현대모비스	0.4	0.3	0.4
SK	1.0	0.9	1.1
두산에너빌리티	0.1	0.1	0.2
셀트리온	0.2	0.2	0.2
하나금융지주	0.6	0.5	0.5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상승을 구현한 수급 방식에서 비롯된 레버리지 청산

지수 신고가 상승 주도한 개인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대형주 매도를 개인 현물·레버리지 수급이 흡수한 구조, 레버리지 ETF의 일일 재조정 수요가 변동성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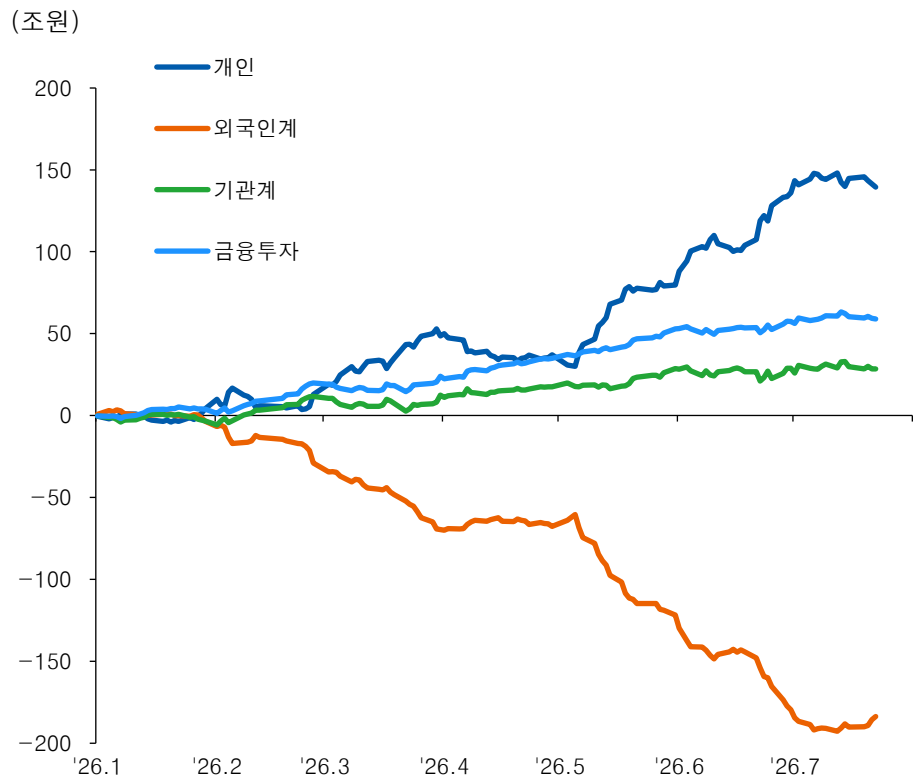
연초 이후 개인 누적순매수 상위	누적순매수 (조원)	연초 이후 외국인 누적순매도 상위	누적순매도 (조원)
SK하이닉스	61.28	삼성전자	-70.91
삼성전자	60.38	SK하이닉스	-49.20
현대차	12.82	현대차	-12.21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4.84	SK스퀘어	-5.00
SK스퀘어	4.64	현대모비스	-4.81
TIGER 미국S&P500	3.68	LG전자	-2.67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3.42	삼성전자우	-2.26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3.37	LG이노텍	-2.09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3.21	LS ELECTRIC	-1.97
KODEX 200	3.10	NAVER	-1.43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3.03	기아	-1.14
현대모비스	2.94	삼성E&A	-1.07
KODEX 미국나스닥100	2.48	현대글로비스	-1.04
LS ELECTRIC	2.39	한국항공우주	-1.00
LG전자	2.35	미래에셋증권	-0.93
KODEX 코스닥150	2.32	고려아연	-0.92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16	HD현대일렉트릭	-0.77
KODEX 미국S&P500	2.01	KB금융	-0.69
TIGER 반도체TOP10	1.88	이수페타시스	-0.67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85	한국전력	-0.65
TIGER 미국나스닥100	1.74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0.64
TIGER 미국우주테크	1.63	DB하이텍	-0.59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1.58	우리금융지주	-0.58
삼성전자우	1.37	리노공업	-0.57
한국전력	1.32	삼성중공업	-0.55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1.27	파마리서치	-0.55
NAVER	1.26	원익IPS	-0.51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급 전망) 급락 이후 반등 주체 외국인, 환율도 안정. 돌아온다면 순매수 여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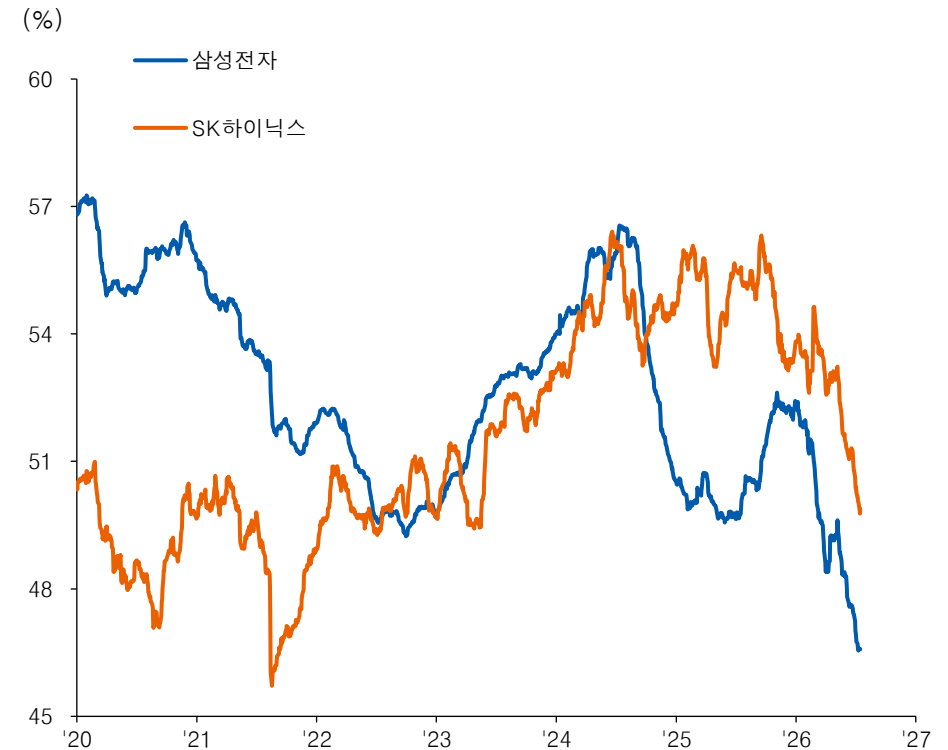
- 최근 개인투자자 레버리지ETF 중심 순매수 이어졌으나 해당 ETF 급락하며 신용 청산 및 손절 투매 진행. 개인 이번주 5.8조원 순매도. ETF 중심 금융투자 수급도 2.1조원 순매도. 반면 외국인 이번주 4거래일 연속, 누적 7조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 견인
- 반등의 지속 여부는 외국인 현물 순매수의 연속성 지켜봐야 하겠으나 7월 한국 GDP 예상치 상회.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번달 이어 8월도 연속 인상 가능성 높아진 상황. 환율 안정화 가능성 크다는 판단. 최근 지속된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 막았던 변수. 현재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지분을 역사상 저점 부근, 돌아온다면 순매수 여력 크다는 판단

올해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의 대결 최근 개인 순매수 여력 둔화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지분율은 역사상 저점 부근, 돌아온다면 여력 크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변동성) 물가 안정세였으나 미국 이란 갈등 재차 심화되며 우려 심화

- 기준금리 인상 우려 완화시켰던 에너지 가격 안정은 미국 이란 갈등 재차 심화된 영향에 반등. 주식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 특히 수급 주체로 기대되는 외국인은 매크로 변수 취약해질 때 주식시장에서 이탈

미국 이란 갈등 심화와 유가 반등 경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정학적 갈등 여파 재개되며 유가, 금리 반등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우려) 여러 우려 가중된 상황에서 딥시크를 연상시키는 키미 K3의 등장

- ① AI 모델 효율성 향상 → GPU 수요 감소 가능성 제기 : Kimi K3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 자원으로 최고 수준 성능을 구현했다고 발표. 시장은 "AI 성능 향상 = GPU가 덜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해석
- ② AI CapEx 축소 우려 재부각 : 이미 TSMC 실적 이후 AI 투자 둔화 논란이 있던 상황. Kimi K3가 그 논리를 다시 자극하면서 반도체 매도 명분으로 작용

TSMC는 실제 AI 칩 수요의 강도를, ASML은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증설 의지와 장비 병목을 확인

구분	DeepSeek (2025.1)	Moonshot Kimi K3 (2026.7)	시장 영향
핵심 내용	저비용으로 GPT급 모델 구현 주장	오픈소스 Kimi K3 공개. 일부 벤치마크에서 Claude·GPT급 성능 주장	AI 모델 효율성 논란 재점화
시장이 해석한 것	"GPU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중국도 적은 연산으로 최고 수준 AI 개발 가능"	AI 인프라 투자 효율성 의문
반도체 하락 논리	GPU·HBM 수요 둔화 우려	향후 GPU 증설 속도 둔화 가능성 우려	AI 반도체 전반 차익실현
투자자 우려	빅테크 CapEx 축소 가능성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	엔비디아·HBM·장비주 약세
실제 확인된 사실	이후 빅테크 CapEx 오히려 확대	아직 CapEx 축소 사례 없음	펀더멘털 변화는 미확인
시장 평가	과도한 우려로 판명	아직 검증 초기 단계	심리적 악재 성격

(실적) 반도체 고점론 핵심이었던 수요 피크아웃 우려 깔끔히 잠재운 알파벳 실적

- 알파벳 호실적 및 가이드언스는 7월 반도체 조정론을 야기했던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 클라우드 매출은 예상치 상회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보여줬고 수주 잔고도 확대
- 여전히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영업이익률이 36% 수준까지 상승했고 26년 Capex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에 이어 27년 Capex 역시 Significantly(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 AI 투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한 점 확인
- 다음주 발표될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역시 Capex 가이드언스 상향 조정할 전망.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예상치 상회한다면 재차 실적 장세 재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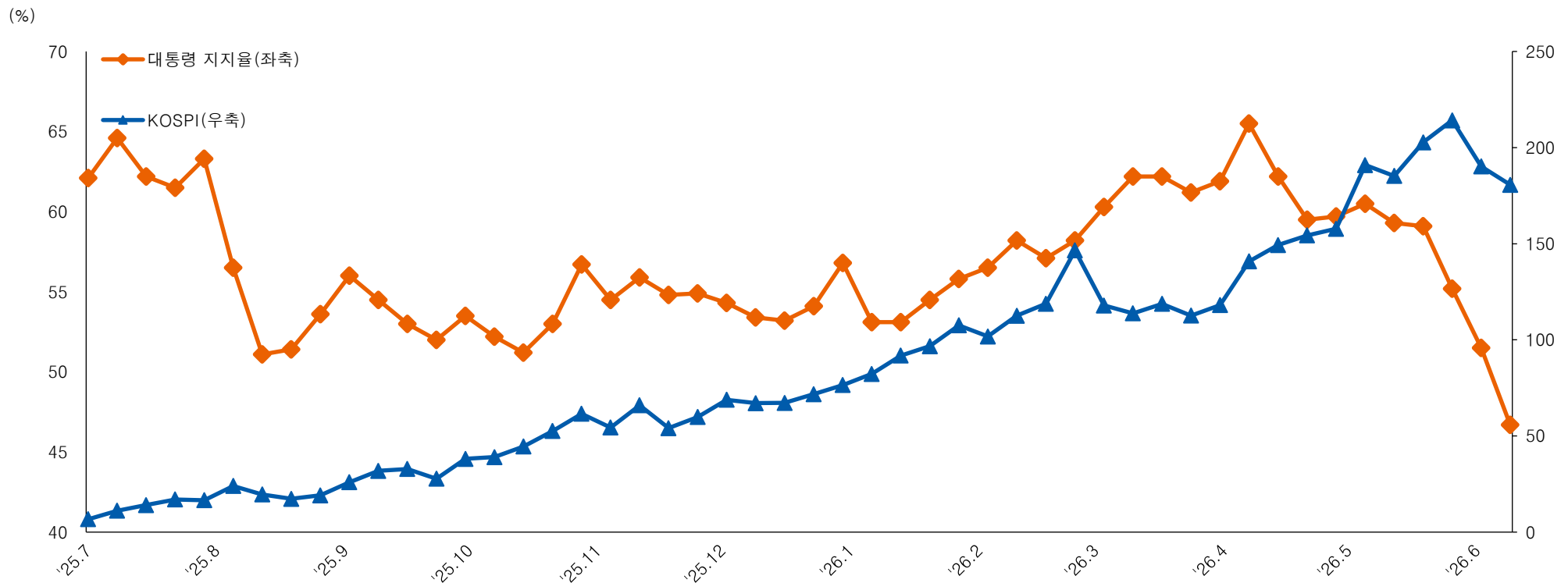
알파벳 실적 발표 내용

핵심 지표	발표 내용	시사점
2026년 CapEx 가이드언스	1,950억~2,050억달러	기존 1,800억~1,900억달러에서 상향.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 반박
2027년 CapEx 전망	상당한 추가 증가 예상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2026년을 넘어 2027년까지 연장
Google Cloud 매출	248억달러, +82% YoY	AI 인프라·기업용 AI 수요의 실제 성장 확인
Cloud 영업이익률	35.60%	대규모 투자에도 AI 사업의 수익화와 영업 레버리지 확인
Cloud 수주잔고	5,139억달러	중장기 매출 가시성 확대. 전체 수주잔고의 대부분이 Cloud에 집중
AI 수급 상황	고객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	CapEx 확대가 선택적 과잉투자가 아니라 공급 부족 대응 성격
단기 부담	2Q CapEx 449억달러, FCF -58억달러	알파벳에는 현금흐름·마진 부담이나 반도체에는 수요와 매출 증가 요인

(정책) 주식시장 부양 강하게 천명한 정부, 주식시장 하락에 무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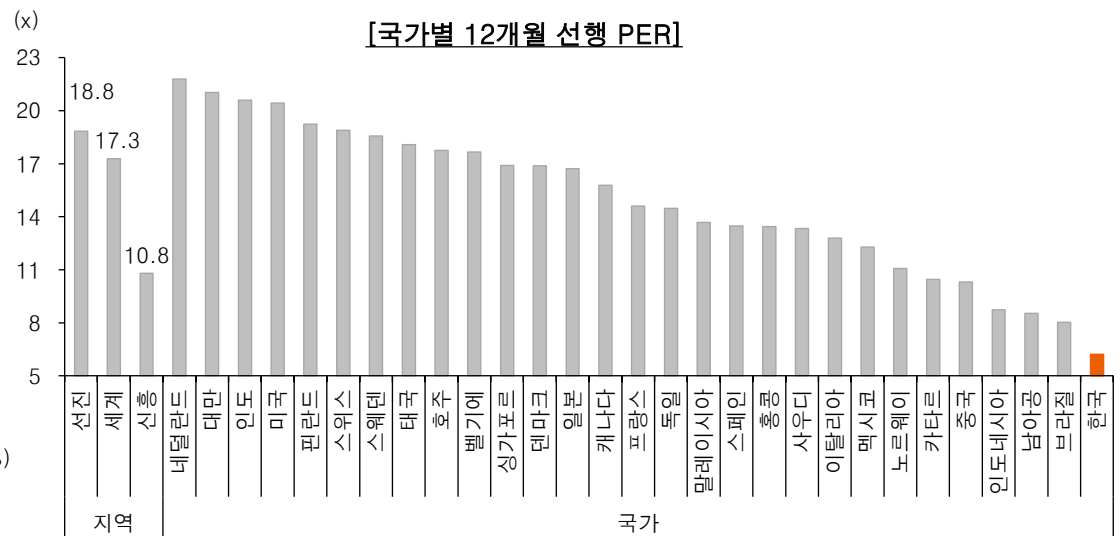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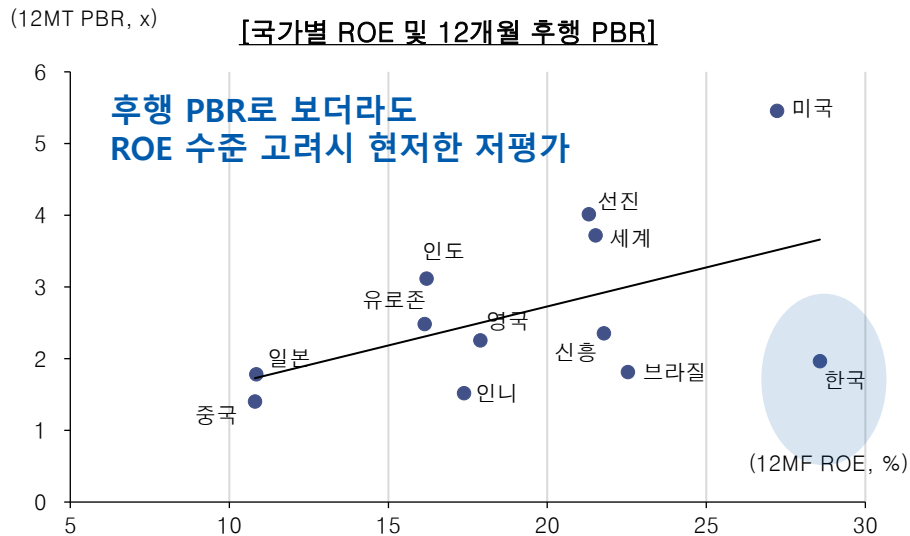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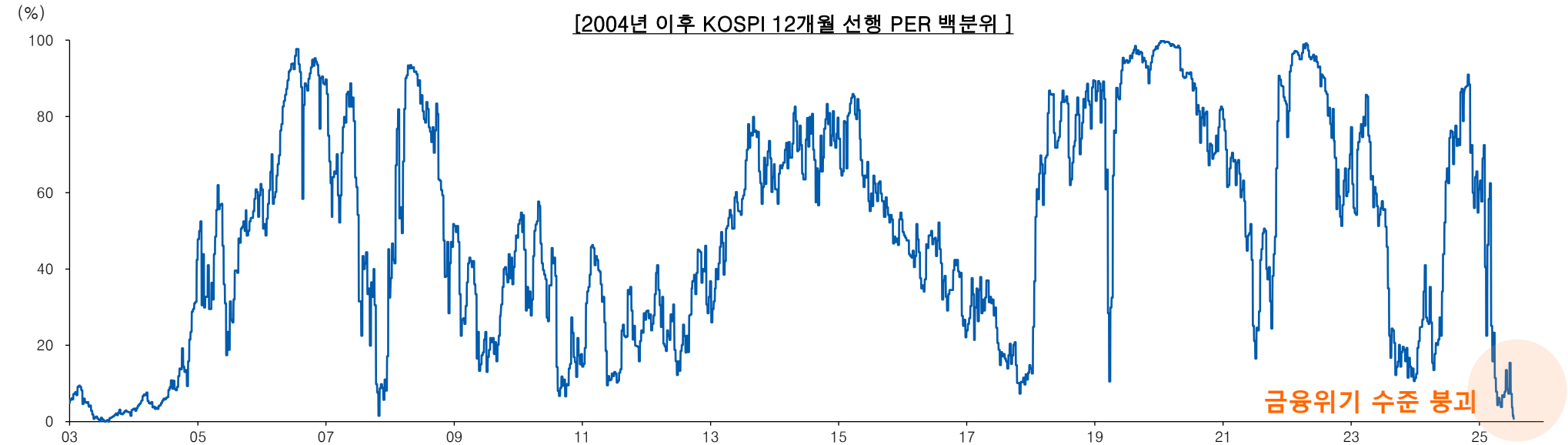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KOSPI는 올해 들어 정책 기대와 주식시장 상승이 맞물리며 방향성이 유사해진 모습. 2~4월 지지율이 50% 중반에서 60% 초반으로 상승하는 동안 KOSPI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이익 확대 기대 반영하며 가파른 상승세 전개
- 반면 4월 3주 65.5%를 고점으로 지지율이 6월 3주 46.7%까지 하락한 구간에서는 KOSPI 역시 중동 불안, 금리 및 유가 상승, 반도체 및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으로 변동성 확대. 정책 추진력과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과가 서로 영향을 받은 공통 결과로 판단. 이재명 정부 주식시장 부양이 강한 국정 과제였기에 지지율과의 상관관계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 레버리지ETF 제도 개선, KOSDAQ 부양책 등 정책 꾸준히 이어질 것

레버리지ETF 등 연이은 정책 실행에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하락에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여전히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상 낙폭 과대 : 매도 실익 전혀 없는 구간

1) 금융위기 이하 2) 아시아 신흥국 3) 후행 PBR 기준으로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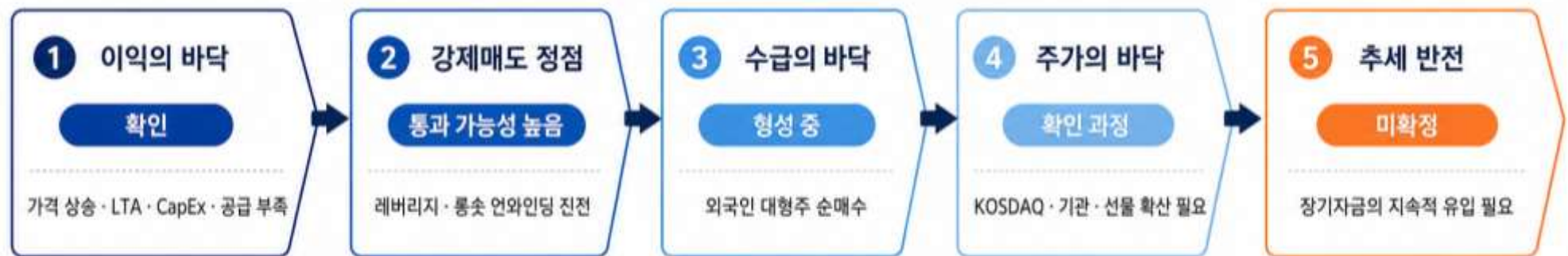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론) 이익과 수급의 '바닥' 을 통과하는 과정

- 7월 반도체 중심 급락은 수요에 대한 붕괴보다 주도주 디레버리징과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의 성격이 강했음을 재확인. 낙폭과대 구간 넘어 수급 바닥 확인하는 구간. 외국인 현선물 매수세 지속 동반된다면 레버리지 중심의 개인투자자 수급보다 더 건전한 수급 주체로의 순매수 주체 변경 의미. 레버리지ETF 제도 개선 역시 기대 요인
- 현재는 투매보다 분할매수가 합리적. 다만 레버리지 청산, 주도주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세 반전을 의미하지는 않음

이익과 수급 두가지 장애물 뛰어넘고 있는 주식시장, 추세적 반전을 향해 분할 매수로 대응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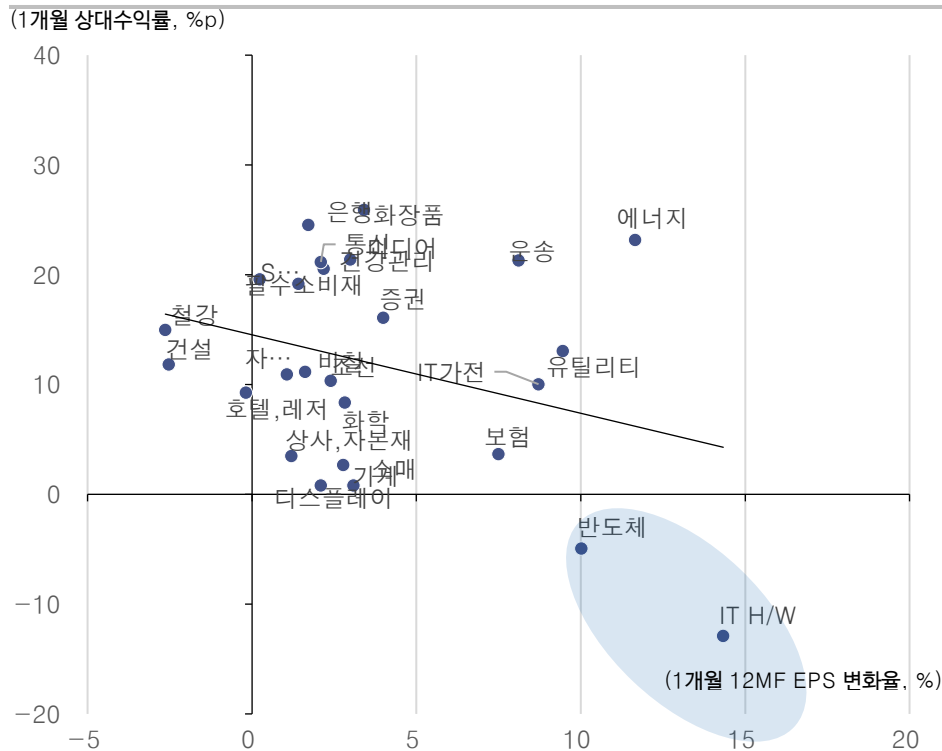


이익의 바닥은 산업 데이터가 확인하고 있으며, 수급의 바닥은 외국인이 만들기 시작한 단계.

전략) 호실적에도 매크로 노이즈 발생, 결국 '이익' 가장 확실한 업종으로 압축 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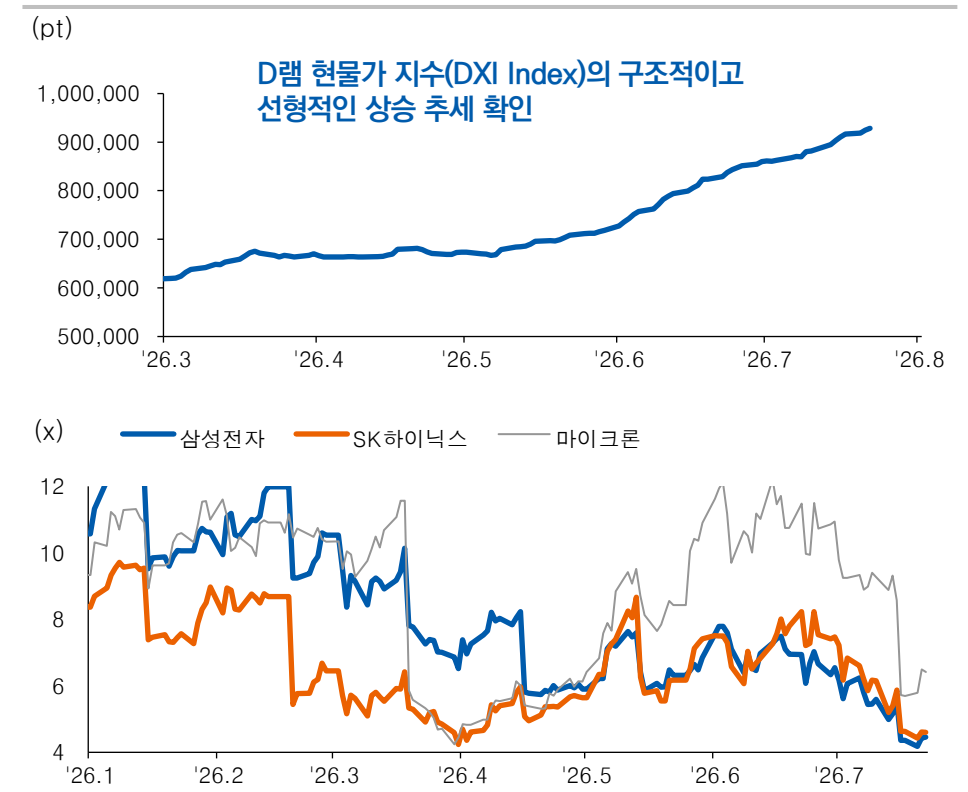
- 다음주 MS, 메타,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 Capex 및 실적 확인 및 SK하이닉스 예상치 상회 실적 확인한다면 실적 장세 전개될 것. 한국 실적 모멘텀은 너무나도 견조. 다만 가장 모멘텀 견조한 반도체 업종이 낙폭 과대하기에 일단 주도주는 낙폭 과대 반도체, 이후 순환매 기대. 공급 부족을 가장 직접적으로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메모리 대형주는 가치주. 시장금리 상승하며 매크로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이익가시성이 중요. 외국인 수급도 반도체에 우호적
- KOSDAQ의 경우 지금보다 더 안좋아질 것이 있나? 싫을 정도의 수급 빈집인 상황.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제도 개선 재촉에 속도 빨라질 전망. 개선된다면 수급 대형주 쏠림 완화되며 낙수효과 기대

있습니까, 우리만큼 많이 빠졌는데 이익이 강한 업종이, 외국인 수급까지 집중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DR 상장 후에도 프리미엄 축소 미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